

경 제 학

해설위원 : 장 선 구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1.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

(1) 기존 방식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 급상승

올해 시험부터 시험의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는 듯하다. 바로 계산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암기식의 공부법이 아닌 현실 경제에 응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암기식 공부방법이나 단순 문제 풀이식의 방법을 추구한 수험생들에게는 체감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포장을 잘 하는 출제 위원

이번 지방직에서는 경매와 실효보호율과 같은 다소 생소한 문제가 나와 소위 멘붕에 빠진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출제자의 포장력에 당한 것이다. 출제 범위에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경매의 문제는 경매로 포장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소비자 잉여의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그리고 실효보호관세율의 계산문제도 그냥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구하라는 문제로 그냥 변화율을 구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에 어떻게 푸는지를 다 제시해 주었다. 만일 단순히 '실효보호관세율을 구하라'라는 문제로 출제되었다면 이것은 국제경제학의 내용까지 습득해서 구하는 공식까지 암기해야 풀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이다. 이번 출제자는 간단한 경제원리를 어렵게 보이는 포장의 기술에 능한 출제자들이었다고 평할 수 있겠다.

(3) 출제범위의 불명확성

포장을 잘 하지만 경제학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출제하신 듯하다. 시험의 범위는 경제원론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암묵적으로 시험범위는 정해져 있고, 이것의 기준은 과거 기출문제가 되어야 한다. 약간씩 시대적인 그리고 학문의 발전에 맞추어 변화해야겠으나 이번 지방직과 같이 뜬금없이 출제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번 시험의 간접세와 직접세, 그리고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분야는 재정학에서 다루는 분야이고, 경제학에서 언급을 한다고 해도 경제원리를 묻는 지문으로 한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출제범위를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험의 예측가능성과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사실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시험 출제 경향과 대비방법

(1) 계산문제의 증가 : 원샷 123 그래프와 계산문제

경제학의 최근 출제 경향에 대비하여 필자는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최근에도 연대와 성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출제 위원급의 많은 교수님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계산문제였다. 사실 미시경제학은 계산문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계산문제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담은 책을 이번에 출간했다. 그리고 그래프의 중요성도 경제학에서는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원리를 깨칠 수 있는 경제학의 등장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문제화해서 책으로 출간했다. 조만간 강의로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2) 기초 경제학의 정복

경제학에서 계산문제의 이전에 기본적인 수학에 잘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연산과 분수, 지수, 평균과 변화율, 탄력성, 직선의 방정식, 곡선의 방정식, 수열, 확률과 통계, 미분에 너무 약한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 한동안 수학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웅지세무대학의 저명한 교수님이신 이재민 교수님과 정영숙 교수님과 더불어 『기초경제수학』을 출간하였다. 혼자서도 독학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만일 좀 힘든 분들은 윌비스고시학원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강의가 있으니 샘플로 한번 보기 바란다. 충분히 기초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산문제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응용력을 고려한 문제 출제 : 그러나 쓸데 없는 것 하지 말기

경제학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그렇다고 이 범위를 모두 공부할 수는 없다. 강사가 최근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서 수험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최근에는 경매이론, 계약이론, 행동경제학, 진화론적 게임이론, 네트워크 양면성시장 등 경제학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원론(외국 원서, 국내 유명 교과서)에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분야도 공부해야 한다. 이 분야를 직접 출제하지 않겠지만, 기초적인 경제원리와 조합하여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공부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기본적인 경제원리만 알면 풀 수 있다.

(4) 자료 해석적인 접근 필요성

최근 경제학도 자료를 주고 해석하는 분위기의 기출이 많이 출제될 듯하다. 이런 현상은 PSAT와 NCS의 도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외국 원서에서는 이미 암기식의 교육보다는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경제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좀더 기본원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캐치하고 응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 앞으로의 공부방법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볼 때 내년의 시험을 예측해 본다면 영어가 없어지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학의 문제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범위를 확장하라는 말이 아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기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전형적인 문제는 깊게 계산문제 위주로 준비하고, 경제적인 시사상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신축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시험에서는 당황하지 않게 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관련된 최신 원서의 문제들과 대학 현장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의 관심 분야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추적하여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겠다고 또 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 참고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 윌비스 학원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 1. 어떤 판매자가 경매(auction)를 통해 물건 100개를 판매하려고 한다. 경매 방식은 '구매자는 원하는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제시하고, 판매자는 입찰 가격을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한 참가자들에게 물건 100개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때 100번째 물건의 판매되는 참가자의 입찰 가격이 유일한 낙찰 가격으로 판매 가격이 되고, 각각의 입찰자는 자신이 제시한 입찰 물량을 낙찰 가격에 구매한다. 모든 참가자는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알고 있다. 다음 표는 판매자가 참가자들로부터 동시에 입찰을 받아 정리한 결과이다. 입찰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가자	입찰 가격(원)	입찰 물량(개)
A	11,200	5
B	11,000	10
C	10,500	20
D	10,300	20
E	9,900	40
F	9,800	10
G	9,600	30

- ① 낙찰 가격은 9,900원이다.
- ② 구매자가 진정한 가격을 입찰한다(truth-revealing)는 전제 하에 구매자 잉여는 47,000원이다.
- ③ 참가자 G는 낙찰되어 제시한 30개 물량 중 10개를 배정받아 스스로 제시한 개당 9,600원에 구입한다.
- ④ 참가자 7명 중 2명은 하나의 물량도 낙찰받지 못한다.

정답 ②

point 소비자 잉여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이 문제는 소비자 잉여를 응용한 문제로 CFA의 기본교재에 있는 유명한 문제로 외국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진교수가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시장이외에 경매도 매우 중시여기고, 소비자 잉여와 엮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원서의 내용을 각색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 보인다. 이 문제가 경매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소비자 잉여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자.

- ① 낙찰가격은 최고가격부터 낮은 순서대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100번째 물량을 구입하는 9,800원이 된다.
- ② 9,800원에 낙찰이 되었으므로, 입찰가격이 9,800보다 높은 구매자들은 잉여를 누리게 된다. 개별물량에 대한 잉여에 물량의 수를 곱한 후에 이를 더하면, 47,000이 된다. 구체적으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참가자	입찰 가격(원)	낙찰가격	구매자 잉여	물량(개)	개별 구매자 잉여	구매자 총잉여
A	11,200	9,800	1,400	5	7000	47,000
B	11,000	9,800	1,200	10	12000	
C	10,500	9,800	700	20	14000	
D	10,300	9,800	500	20	10000	
E	9,900	9,800	100	40	4000	
F	9,800	9,800	0	10	0	
G	9,600			30		

- ③ 참가자 G는 입찰가격 < 낙찰가격이 되어 하나도 구매하지 못하게 된다.
- ④ 참가자 1명인 G만 낙찰 받지 못한다.

문 2. 정부에서 어떤 도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롭게 고용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은 편익이 아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편익의 계산에서 도로건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서비스업이 이전해 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차적인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③ 편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커진다.
- ④ 비용 계산 시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④

point 비용-편익분석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지방직 시험은 이상하게 주요 토픽이 아닌 부분에서 문제가 2문제정도 출제가 된다. 수험목적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경향은 아닌듯하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한정시켜 주어야 공부를 하면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세무사 시험에 현재 속한 재정학에서 한 챕터로 다루는 분야로 일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이다. 물론 경제학의 기본마인드가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보고 "우와~재정학도 공부해야 하는구나"하면서 공부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은 엄청난 장수생의 길로 접어드는 잘못된 공부법이 된다. 정확한 경제학 마인드를 바탕으로 답만 골라내면 된다. 문제를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④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고려할 경우 항상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도 기회비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문 3. 어떤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Y = AK^{0.3}L^{0.5}H^{0.2}$ 이다. 여기서 A, K, L, H 는 각각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인적자본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 자본 증가율이 3%, 노동 증가율이 4%, 인적자본 증가율이 5%인 경우 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 ① 3.2%
- ② 4.9%
- ③ 5.5%
- ④ 6.8%

정답 ②

point 성장회계방정식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수업시간에 항상 언급하는 바와 같이 최근 추세는 변수를 확장하는 것이다. 생산요소도 과거에는 2개뿐인 L, K만 고려했는데, 인적자본까지 고려하여 3개로 확대하고 있다. 생산되는 재화도 이제는 2개에서 3개까지 고려한 문제를 대비해야 할 날이 드디어 온 것이다.

문제에서 생산함수를 변화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rac{\Delta Y}{Y} = \frac{\Delta A}{A} + 0.3 \frac{\Delta K}{K} + 0.5 \frac{\Delta L}{L} + 0.2 \frac{\Delta H}{H}$$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면 $\frac{\Delta A}{A} = 1\%$, $\frac{\Delta K}{K} = 3\%$, $\frac{\Delta L}{L} = 4\%$, $\frac{\Delta H}{H} = 5\%$ 를 대입하면 쉽게 4.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4. 현재 어떤 생산자가 재화 X를 Q만큼 생산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비용은

$$MC = 2Q, \text{ 한계수입은 } MR = 24 \text{라고 하자. 재화 X의 생산은 제3자에게 환경오염이라는 형태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데, 재화 X가 Q만큼}$$

생산될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한계피해액(Marginal External Cost)은 $MEC = Q$ 이다. 정부는 X의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생산자가 현재 생산량으로부터 한 단위 감축할 때마다 정책의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지급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산량 감축 1단위 당 보조금은?

- ① 2
- ② 4
- ③ 6
- ④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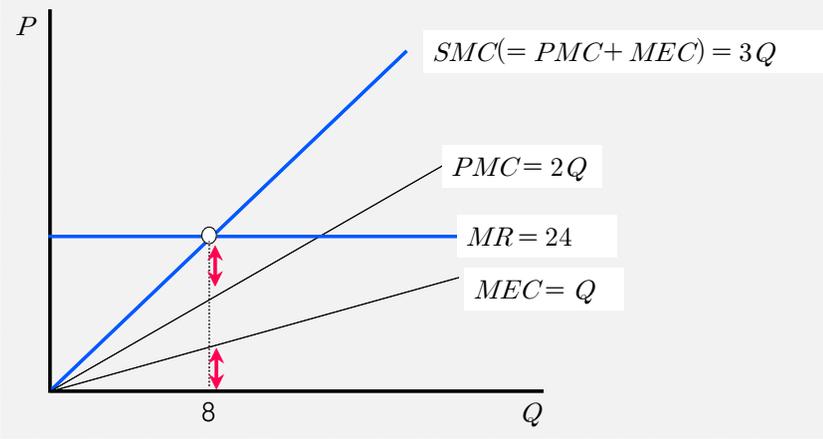
정답 ④

point 피구세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전형적인 피구세의 계산문제이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피구세와 보조금이 있는데, 이 둘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라고 볼 수 없다.

문제에서는 피구보조금을 구하는 것이지만, 보조금과 조세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평소에 풀던 피구세를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이다. 사회적인 최적수준은 $SMC = MR$ 에서 결정되므로 최적 생산량은 $Q = 8$ 이 된다. 피구세(피구보조금)은 최적생산량 수준에서 사회적 한계피해액인 외부비용 $MEC = Q$ 에 해당하는 크기로 정해진다. 따라서 피구보조금은 $Q = 8$ 일 때 $MEC = Q$ 에 대입한 8이 된다.



문 5. 어느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피트니스클럽 A가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시행하려고 한다. A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 = 4,000 - 5P$ 이다. 여기서 Q 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고, P 는 A의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이다. 또한 A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은 $MC = 400$ 이다. A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부가격제도는? (단, 단위는 원이다)

고정회비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
① 400,000원	400원
② 400,000원	600원
③ 100,000원	600원
④ 100,000원	400원

정답 ①
point 이부가격제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이부가격제는 고정회비로 가입비와 한계비용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2단계로 받는 가격체제이다. 서비스 한 단위당 가격은 한계비용으로 결정되고, 고정회비는 최대 소비자 잉여만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고정회비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되므로 삼각형 빗금친 면적인 400,000원이 된다. 그리고 서비스 한단위당 가격은 400원이 된다.

문 6. GDP 디플레이터(defl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는 데 불리한 지표이다.
- ②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다는 점에서 명목 GDP 1단위에 대한 실질 GDP의 값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 ③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 변화효과는 제거하고 기준가격에 대한 경상가격의 변화분만 나타내는 지표이다.

④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는 장기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정답 ③
point 물가지수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③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소득을 실질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DP\ deflator = \frac{P_1 Q_1}{P_0 Q_1}$$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비교년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 생산량 변화효과는 제거하고, 물가상승의 변화분을 측정하는 파세지수에 해당한다.

문 7. A국가의 노동 1단위는 옥수수 3kg을 생산할 수도 있고, 모자 4개를 생산할 수도 있다. 한편 B국가의 노동 1단위는 옥수수 1kg을 생산할 수도 있고, 모자 2개를 생산할 수도 있다. A국가의 부존 노동량은 3만 단위이고, B국가의 부존 노동량은 5만 단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국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② 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③ A국의 옥수수 1kg 생산의 기회비용은 모자 4/3개이다.
- ④ 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 ④
point 비교우위 이론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비교우위와 교역조건을 구하는 것은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기회비용으로 바꾸고, 기회비용의 범위가 교역조건이 된다고 보면 된다. 단지 기준 상품이 무엇이고, 관심있는 비교상품이 무엇이지만 주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①, ② 두 국가가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하는 옥수수와 모자의 생산량(Q)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산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클수록 절대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옥수수와 모자 모두 A국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Q	옥수수	모자
A국	3	4
B국	1	2

③ 이를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다. A국의 옥수수 생산의 기회비용을 모자로 나타낸 경우 4/3가 된다.

기회비용	옥수수	모자
A국	4/3	3/4
B국	2/1	1/2

④ 기회비용으로 나타낸 숫자가 작을수록 기회비용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A국의 경우에는 옥수수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모자에 비교우위가 있다.

문 8.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고용계약의 비중이 클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 ② 단기 필립스곡선이 장기 필립스곡선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 ③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④ 예상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①
point 필립스 곡선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얼핏보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기 지문 ②,③,④는 굉장히 기초적인 유명한 지문들이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①번과 같은 응용된 지문이 나와서 틀렸다는 변명을 하기에는 좀 구차한 측면이 있다.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실전에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 ①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고용계약이 많아진다는 것은 물가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고전학파가 강조하는 형태에 가까워진다. 고전학파의 필립스 곡선은 물가변화에 대한 예상이 정확하게 될수록 수직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
- ②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장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 ③ 자연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필립스 곡선은 우측(상방)으로 이동한다.
- ④ 예상물가상승률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상방(우측)으로 이동한다.

문 9. 세계는 A국, B국, C국의 세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B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C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A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B국과 C국의 A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을 때, B국과 C국의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국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각할 것이다.
- ② C국의 환율(C국 화폐로 표시한 A국 화폐 1단위의 가치)은 상승할 것이다.
- ③ B국과 C국 모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을 경험한다.
- ④ C국이 B국보다 A국 경제불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정답 ④
point 환율제도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차이점을 묻는 지문이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해외의 경제 충격이 그대로 국내로 과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버퍼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부분의 경제 충격을 환율이 어느 정도 완화시켜 국내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작게 된다. 그 결과 A국의 경제불황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B국가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가게 된다.

문 10. 자유무역 시 A국의 국내 생산자는 80달러의 수입 원모를 투입하여 생산한 옷을 국내시장에서 한 벌 당 1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만약 A국이 수입 옷 한 벌 당 10%의 명목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A국의 국내시장 옷 가격은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승하여 A국 국내 생산자의 옷 한 벌 당 부가가치는 20달러에서 30달러로 증가한다. 이때 A국 국내 생산자의 부가가치 변화율로 바라본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은?

- ① 40%
- ② 50%
- ③ 60%
- ④ 70%

정답 ②
point 변화율 계산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얼핏보면 국제무역론의 실효보호관세율을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국내 생산자의 부가가치 변화율로 바라본”이라는 문제의 단서와 힌트를 제시하고 있다. 원래 출제해서는 안되는 문제범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부가가치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자칫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기초경제수학을 열심히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만일 출제자가 그냥 아무런 단서가 없이 실효보호관세율을 구하러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출제경험이 없는 출제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렵게 포장을 하면서 푸는 법을 모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 착하신 출제자라고 볼 수 있겠다. ^^

‘부가가치 변화율로 바라본’이라는 문제의 단서가 있으므로 그대로 풀면 된다. 부가가치

변화율은 관세부과 이전에는 부가가치가 20이었다고 했는데, 관세 부과 이후에 부가가치가 30이 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 변화율은 $\frac{30-20}{20} \times 100\% = 50\%$ 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문 11.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② 직접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 ③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
- ④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역진적이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정답 ①
point 직접세와 간접세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직을 출제하신 교수님은 경제학 출제범위의 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경제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문은 세무사 재정학에 매년 나오는 단골 손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니. 출제 위원들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암묵적인 범위를 이탈하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해서 이에 대응해 범위를 확장시키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마인드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세는 소득세를 생각하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물품세를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세는 초과부담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해도 경제적 인 힘의 관계인 탄력성에 의해서 생산자에게 조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가시킬 수 있다. 아이스크림에 10%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할 때 소비자는 생산자가 가격을 인하해주지 않는다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 생산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여 조세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
- ② 직접세와 같은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쉽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다.
- ③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 비해서 조세부과에 의한 부담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므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물건을 구입할 때 동일하게 10%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2. 시중금리가 연 5%에서 연 6%로 상승하는 경우, 매년 300만 원씩 영원히 지급받을 수 있는 영구채의 현재가치의 변화는?

- ① 30만 원 감소
- ② 60만 원 감소
- ③ 300만 원 감소
- ④ 1,000만 원 감소

정답 ④
point 무한급수(현재가치)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경제학에서는 앞으로도 계산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실제 경제학의 기출 중에서 혹은 출제 가능한 문제를 모아서 계산문제 특강으로 책을 만들었고 강의를 촬영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기초경제수학의 내용(지수, 방정식, 함수, 직선과 곡선의 그래프, 수열, 급수, 평균, 확률, 미분 등)을 쉽게 쓴 『기초경제수학(이재민, 정영숙, 장선구 저, 형설출판사)』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으로 강의한 것이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 수학에 약한 분들은 반드시 한번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A원이 r의 이자율로 영구히 받는다면 이때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한 값은 $\frac{A}{r}$ 이 된다.

시중금리가 연 5%인 경우에 매년 300만원씩 영구히 지급받는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frac{300}{0.05}$ 라고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연 6%로 상승하게 되면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frac{300}{0.06}$ 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5%에서 6%로 상승하는 경우에 변화된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rac{300}{0.05} - \frac{300}{0.06} = 300 \left(\frac{1}{0.05} - \frac{1}{0.06} \right) = 1,000 \text{ 만 큼 감소한다.}$$

문 13. 매년 4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한 저소득층 가구에서 매년 100 kg의 쌀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현금 대신 매년 200 kg의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쌀의 시장가격은 kg당 2,000원이어서 지원되는 쌀의 가치는 40만 원이다. 쌀의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가구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① 이 가구는 새로 도입된 현물급여보다 기존의 현금급여를 선호할 것이다.
- ② 현물급여를 받은 후 이 가구의 예산집합 면적은 현금급여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 ③ 이 가구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쌀 소비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 ④ 만약 쌀을 kg당 1,500원에 팔 수 있는 재판매 시장이 존재하면, 이 가구는 그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답 ②

point 현금보조 vs 현물보조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동일한 가치의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비교문제이다. 지원받는 쌀의 소비량의 크기가 현재 소비하고 있는 쌀의 양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차피 쌀을 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는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현재 소비하고 있는 쌀의 양이 100kg인데, 지원을 받는 쌀의 양이 200kg인 경우에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더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현물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산선의 면적은 현금급여를 받는 예산선의 면적보다 작게 된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 14. A시의 시내버스시스템이 적자상태에 있어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A시의 대중교통과 직원은 버스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반해, 시민단체는 버스요금 인하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한다.
- ②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한다.
- ③ 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가 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 ④ 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직원의 경우가 더 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답 ②

point 가격탄력성과 판매수입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총수입의 증대방안으로는 가격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해야 소비가 크게 늘어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가 크게 줄어 않아서 총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작다고 보아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시민단체는 버스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다고 봐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TR = PQ$ 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문 15.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수량방정식은 $M \cdot V = P \cdot Y$ 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 은 통화량, V 는 화폐유통속도, P 는 산출물의 가격, Y 는 산출량이다)

- ① 화폐유통속도(V)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M)을 증대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P \cdot Y$)는 통화량과는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 ③ 산출량(Y)은 통화량(M)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 ④ 중앙은행이 통화량(M)을 급격히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답 ③

point 화폐수량설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③ 화폐수량설은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고전학파는 산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화폐의 증대와 같은 통화량의 증대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생산요소의 공급과 생산기술에 의한 공급측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16.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철수 집의 자산가치는 10,000이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철수 집의 자산가치는 2,500이다. 철수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8이고,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0.2이다. 위험을 기피하는 철수의 효용함수는 $U(X) = X^{1/2}$ 이다. 화재의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은? (단, X 는 자산가치이다)

- ① 200
- ② 300
- ③ 400
- ④ 500

정답 ③

point 기대효용이론과 위험프리미엄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기대수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0.2 \times 2,500 + 0.8 \times 10,000 = 500 + 8,000 = 8,500$
 기대효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0.2 \times \sqrt{2,500} + 0.8 \times \sqrt{10,000} = 10 + 80 = 90$
 기대효용과 동일한 만족을 주는 확실한 소득은 8,100이 된다. 따라서 확실대응액인 8,100과 시대소득과의 차이가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 된다.

문 17. 다음 표와 같은 조건 하에서 A국과 B국은 옷과 쌀 2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노동만이 두 상품의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불변인 리카르도 모형을 고려하자. 이제 자유무역으로 국제시장에서 상대가격($P_{\text{옷}}/P_{\text{쌀}}$)은 1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무역 전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wage$ 는 명목임금, P 는 가격, MP 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A국		B국	
wage = 12		wage* = 6	
$MP_{\text{옷}} = 2$	$MP_{\text{쌀}} =$	$MP_{\text{옷}}^* =$	$MP_{\text{쌀}}^* = 1$
$P_{\text{옷}} =$	$P_{\text{쌀}} = 4$	$P_{\text{옷}}^* = 3$	$P_{\text{쌀}}^* =$

- ① A국은 쌀을 수출할 것이다.
- ② 무역 이전에, 옷 생산의 경우 B국의 $MP_{\text{옷}}^*$ 이 A국의 $MP_{\text{옷}}$ 보다 높다.
- ③ 무역 이전에, 쌀 생산의 경우 B국의 $MP_{\text{쌀}}^*$ 이 A국의 $MP_{\text{쌀}}$ 보다 높다.
- ④ 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①

point 비교우위이론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요소시장의 균형식을 이용하면 $VMP = P \times MP = w$ 가 된다(여기서는 투입요소가 노동만 있기 때문에 L 을 부각시켜 쓰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식만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 균형식에 대입하면 위의 빈칸을 쉽게 채울 수 있게 된다.

A국		B국	
wage = 12		wage* = 6	
$MP_{\text{옷}} = 2$	$MP_{\text{쌀}} = 3$	$MP_{\text{옷}}^* = 2$	$MP_{\text{쌀}}^* = 1$
$P_{\text{옷}} = 6$	$P_{\text{쌀}} = 4$	$P_{\text{옷}}^* = 3$	$P_{\text{쌀}}^* = 6$

- ① A국은 B국에 비해서 쌀의 한계생산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한 시장에서의 가격도 쌀이 옷보다 시장가격이 낮기 때문에 쌀에 비교우위가 있고, 그 결과 A국은 쌀을 수출하게 된다.
- ② 무역 이전에, 옷 생산의 경우 A국과 B국의 한계생산은 2로 동일하다.
- ③ 무역 이전에, 쌀 생산의 경우 $MP_{\text{쌀}}^A = 3 > MP_{\text{쌀}}^B = 2$ 이므로, A국의 한계생산이 B국의 한계생산보다 높다.
- ④ 무역이 일어나게 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하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되지만, 한 기업만 생산을 하게 되면 독점이윤을 얻게 된다. 이제 B국은 Y사가 대형항공기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도록 Y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때 B국이 Y사에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보조금은? (단, X사가 있는 A국은 별다른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단위 : 백만 달러)

		Y사	
		생산	생산 않음
X사	생산	(-1, -2)	(24, 0)
	생산 않음	(0, 20)	(0, 0)

※ 주: (,)안의 숫자는 (X사의 보수, Y사의 보수)를 말한다.

- ① 1백만 달러 초과
- ② 20백만 달러 초과
- ③ 2백만 달러 초과
- ④ 24백만 달러 초과

정답 ③

point 게임이론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전략적 무역이론은 국제무역론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는 기초경제학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와이드 경제학』(홍승기, 박환재, 장선구 공저)에서 박스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를지라도 문제를 푸는데는 약간의 센스만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다. 설명 그렇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을 경제학 읽을꺼리로 평소에 봐둔다면 좀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내쉬균형이 2개 나온다. (X,Y)=(생산, 생산 않음), (생산 않음, 생산). 즉, 어느 한 기업이 생산하고 다른 한 기업은 생산하지 않는 경우이다. 결국 어느 기업이 먼저 선발자로 진입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Y사	
		생산	생산 않음
X사	생산	(-1, -2)	(24, 0)
	생산 않음	(0, 20)	(0, 0)

이때 B국 정부가 Y사에 보조금을 전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Y사가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만일 Y사에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들들어 3백만 달러를 지급하게 되면 위의 보수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이때 내쉬균형은 (X,Y)=(생산 않음, 생산)으로 이행하게 된다.

		Y사	
		생산	생산 않음
X사	생산	(-1, 1)	(24, 0)
	생산 않음	(0, 23)	(0, 0)

문 2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어난다.
- ②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 상승을 가져와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내물가는 상승한다.
- ③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 ④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이 상승하여 국내기업의 달러표시 해외부채의 원화평가액은 감소한다.

정답 ④

point 기준금리 인하 효과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④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동일한 외채이지만 갚아야 할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미국에 1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갚아야 할 부채의 부담은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더 커지게 된다.

문 18.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한다.
- ② 장기금리를 높인다.
- ③ 보유한 국공채를 매각한다.
- ④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답 ④

point 유동성합정과 양적완화 중요도 ★★★ 난이도 ★★★

해설

[Tips]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는 2016년 국가직 7급을 비롯하여 최근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것으로 그 의미와 정책적인 효과와 배경을 잘 숙지해야만 한다. 앞으로도 거시경제학은 시사적인 측면에 경도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거의 0로 가깝게 된 경우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전통적인 통화량 증가를 은행을 통해서 공급하면 명목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된다. 이때는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의 일환인 양적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의 양상이 갈리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 19. 세계시장에서 대형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은 A국의 X사와 B국의 Y사만 있으며, 이 두 기업은 대형항공기를 생산할지 혹은 생산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두 기업이 대형항공기를 생산하거나 생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윤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자. 즉, 두 기업 모두 생산을